

# 종잇값 71% 올린 담합... 중소인쇄업계, 과징금 감면에 ‘분통’

중소인쇄업계 “피해회복 대책 마련”  
공정위, 제지 6사에 과징금 3383억  
한솔제지 리니언스로 전액 면제  
무림 3社도 과징금 517억 줄어

“공정경제 기조에 역행” 강력 반발  
제도 개선·가격 관행 중단 촉구

단행본, 교과서, 잡지 등을 인쇄하는 중소기업들이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등 6개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담합) 과징금 감면 결정에 잔뜩 뽀이 났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협동조합들은 20일 낸 성명서에서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로부터 영세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 감면 기준, 심의 과정 투명 공개 ▲



제미나리로 생성한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 제지사 과징금 논란 이미지.

대기업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조속 수립 ▲리니언시 제도 실효성 전면 재검토 ▲중소기업 피해구제 실질적 강화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착수 ▲인쇄용지 제조사의 일방적 가격 결정 관행 즉각 중단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상생협력을 위한 제조사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말 한솔제지, 무림그룹 계열의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 그리고 한국제지, 흥원제지 총 6개사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한솔제지가 14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무림그룹 계열 3사가 총 1382억원으로 두번째 많다. 6개사 가운데 한국제지와 흥원제지는 과징금 부과에 더

해 검찰 고발도 결정됐다.

이들 6개 제지사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액수 중 역대 5번째로 크다. 제지업계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선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이 기간 판매가가 톤(t)당 84만1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평균 71% 상승했다.

이같은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은 중소 인쇄업체의 인쇄비,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은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보 등을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이득은 제지사가 가져가고, 피해는 중간·최종 소비자가 본 것이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6개 제지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95%, 수입 인쇄용지가 지 감안하면 약 81%로 절대적이어서 시장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과징금을 가장 크게 맞았던 한솔제지는 이후 전액 감면을 받

았다. 한솔제지는 지난 6월 12일 공시를 통해 “부과금액(1425억8000만원)은 공정위 의결에 의해 납부 면제됐다”고 밝혔다.

무림피앤피도 같은날 공시를 내고 과징금을 919억5700만원에서 574억7300만원으로 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무림그룹 계열사 3곳이 감면받은 액수는 총 5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솔제지와 무림 계열사들에게 내려진 과징금이 면제 또는 줄어든 것은 ‘리니언시 (leniency) 제도’ 때문이다. ‘자진신고감면제’ 등으로도 불리는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등이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인쇄업계는 이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치유될 때까지 정부, 정치권을 대상으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체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삼성디스플레이, 더 밝고 오래가는 노트북 OLED 공급

노트북용 탠덤 OLED 상용화 본격화  
최대 1600니트·기준 대비 수명 2배  
VESA 최고등급 ‘트루블랙 1400’ 충족

삼성디스플레이가 최대 1600니트(nit) 밝기를 구현하는 노트북용 탠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글로벌 PC 제조사에 본격 공급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가 이달 신설한 최고 등급 화질 인증을 충족하는 패널을 상용화 단계에서 곧바로 내놓으며 프리미엄 노트북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2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노트북용 탠덤 OLED는 영상전자표준위원회(VESA)의 신규 고휘도 인증 등급 ‘디스플레이HDR 트루블랙 1400’ 기준을 충족한다. 회사는 해당 패널



VESA의 새로운 고휘도 디스플레이 인증 등급 ‘DisplayHDR™ True Black 1400’ 획득을 지원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노트북용 탠덤 OLED 데모 제품.

/삼성디스플레이

을 글로벌 PC 제조사에 공급 중이며 하반기 중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OLED·QD-OLED 패널을 순차 선보일 계획이다.

트루블랙 1400은 지난 8일(현지시간) 공표된 트루블랙 규격의 최상위 등급으로

전문가용 HDR 콘텐츠 제작과 프리미엄 HDR 콘텐츠 감상을 겨냥해 신설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최고 휘도 1400니트 이상을 달성하면서 블랙 표현은 0.0005니트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전체 화면 지속 휘도도 700니트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최고 등급인 트루블랙 1000 대비 휘도 기준이 40% 높아진 것으로 깊은 검은색과 강한 하이라이트를 동시에 검증하는 셈이다. 색 정확도·명암비·블랙 레벨 등 검증 항목을 확대한 신규 테스트 체계(CTS 1.2)가 함께 적용돼 인증 문턱 자체가 한층 높아졌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패널은 패널 기준 최대 1600니트까지 밝기를 끌어올렸다. 단일 발광층 구조인 싱글 스택 OLED의 최고 휘도 1100니트보다 40% 이상 높

은 수준으로 현재 상용화된 노트북용 OLED 가운데 최고 밝기다.

핵심은 유기 발광층을 두 개 층으로 쌓는 탠덤 구조다.

적층된 발광층이 함께 빛을 내기 때문에 동일 전류에서 더 높은 밝기를 내고, 같은 밝기에서는 발광층의 부담이 줄어 수명이 길어진다. 일반적인 노트북 사용 환경 기준 수명은 기존 싱글 스택 대비 2배 이상이다. 여기에 신규 유기 발광 소재를 적용해 같은 전력에서 구현 가능한 휘도와 수명을 함께 끌어올렸다.

고객사 확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패널을 탑재한 레노버 ‘요가 프로’ 16형 신제품은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트루블랙 1400 인증을 획득한 노트북이 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삼표시멘트

순환연료 비중 58%

탄소중립 전환 속도

삼표시멘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는 합성수지, 페타이어집 등 순환연료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58%로 늘린다. 무연탄 대신 태우는 순환연료 비중은 지난해 43%였다. 시멘트 제조의 핵심 원료인 석회석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비산탄염(CaO) 원료 사용도 2025년 5%에서 2030년엔 7%까지 확대한다. 삼표시멘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삼표시멘트 ESG 보고서’ (사진)를 20일 내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료 전환 ▲원료 및 제품 혁신 ▲기술 혁신의 3대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김승호 기자

## 공공부문 AI 활용... 7대 윤리 원칙 수립

소진공, 전 직원 참여 윤리 실천 서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 실천 서약식을 갖고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원칙’을 수립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서약식은 AI를 활용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올바른 AI 활용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리 원칙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AI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정보보호 ▲전문성을 7대 핵심 원칙으로 구성했다. 앞서 소진공 전 직원은 실질적인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AI 윤리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16일에는 NIA로부

터 ‘AI 윤리준수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단이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과 윤리적 실천을 내재화하고 있음도 재확인했다.

소진공은 향후 AI 기반 업무혁신 과제의 기획부터 도입, 운영,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윤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AI 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혁신할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윤리 원칙 선포를 계기로 임직원의 책임 있는 AI 역할을 더욱 강화해 소진공이 공공부문 AI 선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한국엔컴퍼니, 야구장서 배터리 체험 팝업

한국타이어와 ‘스트라이크존’ 운영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한국 배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체험형 팝업 행사를 개최했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배터리와 타이어 브랜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엔컴퍼니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야외 광장에서 ‘스트라이크존(STRIKE ZONE)’ 팝업 이벤트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AGM 배터리를 주제로 한 ‘배터리 타임어택’ 프로그램을



한국(HANKOOK) 프리미엄 AGM배터리.

운영했다. 배터리 모양의 타이머가 작동하면 참가자가 정확히 2초에 맞춰 스톱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제품의 2년 품질보증을 체험 요소와 연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굴러볼링핀을 쓰러뜨리는 ‘타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이어 튜브를 던져 막대에 거는 ‘타이어 링토스’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가온전선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美 전력망·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가온전선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성장과 고부가 제품 수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가온전선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조6330억원, 영업이익 640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3%, 41.8%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반기 기준 최대치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웃돌면서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이어졌다. 실적 성장은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케이블과 버스덕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 내 배전 케이블 공급 부족과 전력망 투자 확대도 수출 증가를 뒷받쳤다. 미국 생산법인 LSCUS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유해민 기자 dhahrah@